

2024년 01월 07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사편 1편 3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550(통248)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욥기 41장 12~34절(구약p.801)

12.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능륜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13. 누가 그것의 겹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14.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15. 그의 준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16.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17.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18.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19.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 나오며
20.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솔이 끓는 것과 같구나
21.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22.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23.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24.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멧돌 아래쪽 같이 튼튼하구나
25.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26. 칼이 그에게 꽃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꽃히지 못하는구나
27.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 같이 여기니
28.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거 같이 되는구나
29.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30.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 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 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31. 깊은 물을 술의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 같이 다루는도다
32.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느니라
33.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34.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 말씀선포 /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상의 위상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분명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특별히 지음 받은 피조물인 인간은 피조물의 왕으로서의 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할 뿐입니다. 영적으로는 죄로 인하여 소망 없는 자가 되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저마다 수고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며, 죽음과 고통, 슬픔과 낙심됨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옴에게 지금까지 말씀하셨듯이 인간은 피조물의 으뜸이 아니며,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분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복된 존재이며,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령이 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더욱 말씀 속에서 처음의 영광스러운 위상을 회복하는 길을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가는 지혜를 얻어 더욱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처음의 이러한 영광스러운 위상이 왜 실추되었습니까?

1. 죄로 인해 인간의 위상은 상실되었습니다.

- 하나님은 옴에게 인간이 제어하기 힘든 동물이라 여겨지는 리워야단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함으로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을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에 대해서도 인간은 완전한 통제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7~29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명을 맡기셨고 모든 피조물은 인간에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과의 연약을 어겨 타락함으로 하나님께 부여받은 통치자의 역할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타락 전에는 인간에게 순종하여 먹을 식물을 내어주던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며 인간에게 저항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8~19절입니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연약을 어기고 죄를 범한 그 이후로는 땅에서 먹고살기 위한 식물을 얻기 위해서는 노동의 고통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리워야단의 사례를 통해, 인간이 자연을 온전히 통제하고 다스릴 수 없음을 알리신 것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죄로 인한 한계를 분명하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무능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옴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게 하심으로 자신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주장을 펼 수 없는 존재임을 바로 인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 또한 모든 인류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주제를 알고 겸손히 엎드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함을 교훈합니다. 올 한 해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그 모든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는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강함을 알아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며 창조 때 사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위상은 오직,

2. 하나님의 은혜로만 회복됩니다.

- 하나님은 옴에게 리워야단에 비해 무능한 인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느냐” (11절)며, 온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강조하십니다. 이는 인간이 어떤 것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대가를 받을 것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옴이 처음에 재앙

을 만났을 때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욥1:21)라고 고백했던 것과 맥을 같이합니다. 그런데 욥은 고난이 시작될 때 이렇게 정답을 말했으나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논쟁하는 가운데 위로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욥에게 처음 고백했던 그 신앙으로 온전히 돌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 주님께 먼저 무언가를 드려서 값으심을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5~36절에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값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오해하여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신들의 공로로 여겼습니다. 즉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그 대가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3~4절을 보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율법준수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을 강조하는 그들에 대하여 사도바울은 단호하게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분명 구원에 관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은 오직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은혜만을 의지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소망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며,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 피조물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다라면 오늘날과 같이 지구 환경의 위기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눈물도 한숨도 없는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과 감사의 삶이요, 걱정 근심 없는 매일의 삶이 찬송의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전쟁과 다툼,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는 하나님과 화평하며 세상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행함으로 오직 은혜로 사는 자, 그 은혜가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상을 회복하며, 죄악 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위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전하고 나누며 축복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그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며,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임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430(통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 폐 회 / 주기도문